힘 아낀 김연경…8강전에서 쏟아붓는다

여자배구 세르비아에 0-3 패…조 3위로 8강 진출

여자배구 대표팀이 세르비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해 A조 3위로 8강 무대를 밟게 됐다.

대표팀은 2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 A조 예선 5차전 세르비아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18-25 17-25 15-25)으로 졌다.

브라질,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케냐와 A조에서 경쟁했던 한국은 3승 2패 승점 7점을 기록하면서 3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다.

사실 이날 경기는 큰 의미가 없었다. A조 2, 3위는 B조의 2, 3위 중 추첨을 통해 8강 상대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면 2위, 패하면 3위를 확정하는 한국으로선 전력을 쏟을 필요가 없었다.

또 앞서 도미니카공화국, 일본과 2경기 연속 풀세트 접전을 벌이기도 한만큼 마지막 경기에서는 전력을 아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김연경(중국 상하이), 김희진(IBK기업은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양효진(현대건설), 김수지(IBK기업은행), 염혜선(KGC인삼공사), 오지영(GS칼텍스) 등 주전을 스타팅 멤버로 내세웠다. 경기 감각 유지 차원이었다.

대표팀은 1세트 초반 상대 높이에 번번이 공격이 막히면서 끌려갔다.

4-9에선 3연속 득점을 내주면서 흐름을 잃었다.

2세트도 양상은 비슷했다. 한국은 무리한 패턴 플레이보다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를 이어갔다.

3세트에서는 체력 안배를 위해 김연경 등 주전 선수들 대신 벤치 멤버로 경기를 소화했다.

김연경은 1, 2세트에서만 9점을 올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8강전은 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세르비아의 경기. 한국 김연경이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리머니가 너무 격했네

승리 기쁨에 뛰다 발목 부상 아일랜드 복서 준결승 기권

아일랜드의 복서 에이던 월시(24)가 황당 부상으로 올림픽 금메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월시는 영국의 팻 매코맥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전날 메디컬 체크와 계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월시가 사실상 기권하면서 매코맥은 준결승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결승으로 직행했다. 월시는 동메달이 확정됐다.

월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복싱 남자 웰터급(69㎏급) 8강에서 머빈 클레어(모리셔스)를 4-1 판정으로 꺾고 준결승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올림픽 복싱은 3~4위 결정전 없이 준결승에서 패한 2명에게 공동으로 동메달을 수여한다.

월시는 주심이 판정 끝에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자 생애 첫 올림픽에서 메달을 확보했다는 기쁨에 겨워 껑충껑충 뛰었다.

그렇게 격하게 승리 세리머니를 펼치던 그는 착지하다가 그만 발목을 접질렸다. 월시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아일랜드 복싱 대표팀은 AP통신의 문의에 월시가 발목 부상으로 준결승을 기권했다고 확인했다.

아일랜드 복싱 대표팀 총감독 버나드 듄은 "월시가 이번 주에 이룬 일은 믿기지 않는 성취"라며 "그의 이름이 아일랜드 스포츠 역사에 남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여복 김소영-공희용 동메달

이소희-신승찬에 2-0 승

한국 선수들이 맞대결한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이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랭킹 5위 김소영-공희용은 2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에게 2-0(21-10 21-17)으로 승리했다.

김소영-공희용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소희-신승찬은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소영-공희용은 1게임에서 11점 차 대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4-0으로 리드를 잡은 김소영-공희용은 12-16 더블스코어로 이소희-신승찬을 따돌렸다.

이소희-신승찬이 실수를 연발하면서 점수 차는 더욱 벌어졌다.

김소영-공희용은 16-10에서 5점을 내리 따며 첫판을 가져갔다.

2게임에 김소영-공희용은 4-7로 밀렸지만, 이내 1점 차로 추격했고 10-10 동점을 만들었다. 11-10으로 뒤집은 김소영-공희용은 13-10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다시 13-13에서 15-15까지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다. 19-16으로 다시 치고 나간 김소영-공희용은 김소영의 스매시로 매치포인트를 잡아냈고,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소영-공희용은 이소희-신승찬을 상대로 한 전적을 3승 4패로 좁혔다.

한국 배드민턴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이어 2개 대회 연속으로 올림픽을 여자복식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리우 대회에서는 신승찬이 정경은(31·김천시청)과 함께 동메달을 땄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이효정-이용대)을 끝으로 3개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은 나오지 않았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 결정전 맞대결을 벌인 것은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복식 하태권-김동문(금메달), 이동수-유용성(은메달) 이후 처음이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이 맞붙기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막아도 쏜다 2일 일본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앙골라의 경기. 류은희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핸드볼 종료 10초전 극적 동점골

앙골라와 31-31로 비겨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앙골라와 극적으로 무승무를 기록했다.

한국은 2일 일본 도쿄의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5차전에서 앙골라와 31-31로 비겼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4강의 성적을 냈으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 13년 만에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나온 한국은 종료 10초를 남기고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따냈다.

이날 패하면 탈락인 벼랑 끝에서 코트에 나선 한국은 전반 종료 7분 정도를 남기고 11-15, 4골 차까지 끌려가며 힘든 경기를 했다.

이후 강경민(광주도시공사)과 조하랑(대구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간격을 좁힌 우리나라는 전반 종료 직전 정유라(대구시청)의 속공 득점으로 1골 차까지 따라붙은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후반 첫 공격에서 강경민의 골로 17-17 동점을 만든 우리나라는 후반 11분이 지날 무렵 류은희(헝가리 교리)의 득점으로 23-22, 역전을 이뤄냈다.

이후 앙골라와 1골 차, 동점을 주고 받으며 접전을 이어간 한국은 종료 5분 전까지 29-29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연달아 2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어졌다.

심해인(부산시설공단)이 종료 1분 30초 전에 한 골을 만회하고 종료 40초 전에 다시 공격권을 잡은 우리나라는 종료 10초 전 강은혜(부산시설공단)의 득점으로 힘겨운 무승부를 따냈다. /연합뉴스

광주FC, 성남과 0-0 전남, 안산 원정 1-1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나란히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가 지난 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1 2021 22라운드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5분 송승민의 슈팅으로 포문을 연 광주는 전반 21분에는 이순민의 중거리 슈팅으로 성남을 공략했다. 후반에는 엄지성과 허율이 헤더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광주는 21라운드 강원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후반기를 승리로 열었지만 이날 9개의 슈팅이 골대를 가르는 데 실패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안산 원정길에 나섰던 전남도 1-1 무승부로 '원정무패'를 이었다.

전남은 지난 1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사무엘의 동점골로 승점 1점을 가져왔다.

전반 43분 안산 장동혁의 오른발에 전남이 먼저 실점을 기록했지만 후반 29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권의 프리킥을 사무엘이 헤더로 연결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두 팀은 공방전 끝에 추가골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1점씩 나눠 가졌다.

전남은 이날 무승부로 원정 무패 행진을 '21경기'로 늘렸다.

올 시즌 원정에서 6승 6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7월 12일 안양전부터 원정 21경기에서 지지 않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블랙 위도우
3관	보스 베이비 2
4관	보스 베이비 2, 블랙 위도우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방법: 재차의
7관 씨네커플	모가디슈, 랑종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8관 씨네커플	보스 베이비 2, 방법: 재차의, 발신제한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